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825호 1판 (음력 7월 18일)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물바다 된 광주 봉선동 주택가 광주와 전남지방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27일 광주 남구 봉선동 주택가 도로가 갑자기 쏟아진 비로 침수돼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폭우 폭탄' 곳곳 침수 피해

시간당 최고 60㎜…농경지·상가·주택·도로 물에 잠겨

광주·전남지역에 27일 태풍 피해에 이어 시간당 최고 60㎜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관련기사 7면〉

27일 광주시·전남도 재난·재해 대책 본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무안군 해제면에서는 주택 4채가 침수돼 출동한 소방당국이 배수작업을 했다.

앞서 오후 1시25분께 함평군 해보면 일대에서도 주택 3채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오후 1시7분께 담양군 봉산면 한 캠핑장에서도 물이 빠지지 않아 시설 관계자가 자체 배수작업을 했다.

순천 지역에서는 벼 21.3㏊ 등 농경지 총 22㏊가 침수됐고, 구례 지역 18.2㏊의 논이 물에 잠겨 행정당국이 복구작업을 마쳤다.

이날 오후 4시10분 기준 누적강수량은 담양 봉산 153㎜, 함평 월야 146.5㎜, 광주 조선대 134㎜, 나주 124.5㎜, 광양 백운산·장성 상무대 100㎜, 무안 해제·신안 지도 92.5㎜ 등을 기록했다.

특히 담양 봉산면에는 시간당 최고 73㎜의 폭우가 쏟아졌다. 신안 지도읍·무안 해제면·광주 동구 서석동도 각각 시간당 최대강수량이 70.5㎜·69.5㎜·65㎜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에도 이날 오전 한 때 시간당 60㎜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 16곳, 도로 58곳에서 침수 피해가 났다. 또 양동과 두암동 옹벽 상단에서 토사를 유출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임동 광천1교·2교는 차량통행이 통제됐고,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광산구 운남동 운남교가 2시간 동안 통행이 통제됐다. 같은 시간, 남구 대남대로·백운고가와 서구 풍암IC 사거리·서광주역 앞 도로·운천역 인근 도로 등이 물에 잠겨 행정당국이 배수작업에 나섰다. 남구 백운동·주월동 일대의 상가 수십여 곳과 차량 60여대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현안 혁신·전략 부재…줄줄이 파열음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현대차 협상 노동계 불참
도시철도 2호선 찬반·건설 방식 논쟁에 매몰…갈등 되풀이
어등산 관광단지 민선 6기 내용 그대로 사업자 공모 '불신'

민선 7기 이용섭호가 기존 현안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혁신'의 형체가 시정에 구체적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데다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의 부재로 인해 소통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 구상에 따른 신규 정책·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타 광역·특별시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에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완성차 공장 설립', 16년간 찬반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민선 4기부터 추진된 '어등산관광단지 사업' 등의 시정 현안이 민선 7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묵은 현안들이 발목을 잡으며 초래되는 지역 내 반목이 다른 사안으로 전이되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7일 출범한 광주시 일자리위원회의 반쪽 출범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와의 협상 내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선 6기 4년 간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오다 지난 6월 5일 현대자동차에서 사업참여 의향서를 보내오면서 시작된 협상과 관련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이탈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재 고임금 구조인 자동차 업계의 임금 절반 수준으로 낮추되 교육·의료·복지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선 6기 4년 동안의 노사민정 합의가 민선7기들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균열이 간 것이다.

시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정부부처, 더불어민주당의 구체적인 협조를 받으면서 '대기업 절반 임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철도 2호선 역시 단순히 찬반, 건설방식 논쟁으로 매몰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에게 피로감만 주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이 동서축인 도시철도 1호선과 구도심 중심의 시내버스 등을 보완하면서 명실상부한 광주 공공(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 기존 승용차 중심의 교통 시스템으로 인해 초래된 대기오염, 미세먼지, 교통 지정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민간사업자가 참여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공모만 되풀이해 행정 불신만 쌓이고 있다. 시는 민선 7기 들어 민선 6기의 공모 내용과 같은 제2차 공모를 실시해 오는 9월 7일 제안서를 접수한다. 10년 이상 장기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개발 인센티브 제공과 이익 일부의 공공기여를 규정하는 제도적·전략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광주신세계 특급호텔 건립 등의 현안도 남아 있다.

시는 조만간 시정 혁신 방향을 정립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지난 21일 간부회의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광주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원칙과 정도를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두환 없는 '전두환 형사재판'

광주지법 변호사 출석 재판
다음 공판 10월 1일 출석 요구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 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광주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6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첫 공판(재판)을 열었다.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 정주교 변호사가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가족과 변호인은 피고인(전두환)이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피고인이 현재 단기 기억상실 상태"라면서 "특히 최근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건강에 무리가 있었고, 주변분들도 장거리 여행은 곤란하다고 해 결국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도 불출석 입장을 어제 오후에 받았다. 이 재판을 마치고 소상히 파악해 재판부에는 가급적 답을 드리겠다"며 또 다시 불출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법원에 재판연기 신청·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일로 정하고 다음 기일까지 출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전 전 대통령) 출석은 의무사항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 (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동7단), 복합휘발유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_2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